

헥터 투·타(?) 활약... KIA 3연승

KIA, kt에 5-2 승



8이닝 2실점 4연승·시즌 7승
 8회 타석에서는 삼진
 버나디나 홈런 등 타선 도움

▲ 수원전적(6일)

KIA	100	000	310	-5
kt	000	110	000	-2

△ 승리투수 = 헥터(7승 2패) △ 세이브투수 = 김윤동(3승 2패 1세이브) △ 패전투수 = 임상백(5패 2세이브) △ 홈런 = 김주찬 10호(1회1점) 버나디나 8호(7회2점·이상 KIA) 오태근 7호(4회1점) 윤석민 10호(5회1점·이상 kt)

KIA 타이거즈 헥터의 '원맨쇼'가 펼쳐졌다.

KIA가 6일 수원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5-2로 이기면서 3연승에 성공했다.

선발로 나선 헥터는 개인 4연승과 함께 시즌 7승에 성공했다. 헥터는 지명타자가 소멸된 8회에는 타석에도 들어서는 등 공수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헥터의 노련함에 승은이 더해진 하루였다.

헥터는 이날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오태근과 윤석민에게 각각 동점 솔로포와 역전 솔로포를 맞는 등 6개의 피안타를 기록했다. 4개의 볼넷도 내줬지만 위기 상황마다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했다.

1회초 나온 김주찬의 솔로포로 1-0으로 앞선 1회말, 헥터가 선두타자 오태근을 볼넷으로 출루시켰다. 하지만 로하스를 상대로 유격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6-4-3 병살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황재균을 좌전안타로 내보낸 2회말에는 포수 한승택이 도루 저지로 헥터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그리고 볼넷으로 내보낸 윤석민은 박경수의 5-4-3 병살로 한 번에 덕아웃으로 돌려보냈다.

선두타자 오태근에게 좌월 솔로포를 맞으면서 1-1이 된 4회말, 홈런 이후 볼넷을 내주면서 헥터가 흔들리자 한승택이 다시 한번 레이저 송구로 주자를 잡아내며, 힘을 보태줬다.

그러나 헥터는 5회말 선두타자 윤석민에게 역전 솔로포를 허용한 뒤, 6회말에도 선두타자 심우준을 1루수 번트 안타로 내보냈다.

이번에도 헥터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났다. 6-4-3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병살을 뽑아낸 헥터는 8회말에는 정현을 4번째 병살타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2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헥터가 마운드를 굳게 지키자 타자들도 뒷심을 발휘하면서 7회 리드를 다시 가져왔다.

7회초 선두타자 정성훈이 좌전 안타로 출루하자 KIA가 최정민을 대주자로 교체했다. 폭투로 2루까지 간 최정민은 이명기의 좌익수 플라이에 이어 한승택이 헥터의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3루 베이스를 훔치



6일 오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 경기 8회초 2사 2,3루에서 KIA 선발 헥터가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나며 미소 짓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면서 2사 3루를 만들었다.

kt가 임상백으로 투수를 교체했고, 타석에는 오른발 뒤꿈치 통증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안치홍이 대타로 섰다. 안치홍의 강한 타구를 kt 유격수 심우준이 잡아냈지만 악송구가 나오면서 최정민이 홈을 밟았다. 이어 앞선 세 타석에서 피어밴드에게 3개의 삼진을 기록했던 버나디나가 바뀐 투수 임상백을 상대로 역전 투런을 터트렸다.

8회에도 KIA가 행운의 득점을 올렸다. 1사에서 최형우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이범호의 좌중간 안타가 나왔다. 포

수의 패스트볼이 나오면서 1사 2,3루. 타자 최정민이 스위치 번트 상황에서 헥터를 했지만, 다시 한번 포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스타트를 끊은 3루주자 최형우가 무사히 홈을 밟았다.

최정민이 2루수 땅볼로 물러난 뒤 이명기가 고의 사구로 걸어 나가면서 2사 1,3루. 이때 헥터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앞선 7회 대타와 대주자를 연달아 투입하는 과정에서 KIA의 지명타자가 소멸되면서 헥터가 8번 타자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다.

삼재민과 상대하게 된 헥터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뒤 2구째 헥터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을 건들며 파울을 만든 헥터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유인구를 그대로 지켜보면서 상대 배터리를 압박했다. 결과는 5구째 헥터의 삼진이었지만 헥터는 공수에서 주목을 받으며 3연승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KIA는 7일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한다. kt에서는 금민철이 출격하면서 좌완 맞대결이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가 6일 아시아 빅리거 최다 홈런 공을 돌려준 팬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추신수는 지난달 30일 메이저리그 통산 176호 홈런을 터트려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거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텍사스 레인저스 트위터 캡처>

추신수 2번 빅리거 최다 홈런볼 돌려받아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아시아 출신 빅리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쓴 공을 돌려받았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는 6일 구단 트위터에 "다시 만나니 기분이 좋다"는 글과 함께 추신수가 한 소년 팬과 찍은 기념사진을 게재했다.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는 오늘 신기록을 장식한 홈런공을 되찾았다"며 "공을 찾도록 도와준 모든 분, 그리고 추신수에게 공을 돌려준 팬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공은 추신수가 지난달 27일 캔자스 시티 로열스와 벌인 홈 경기에서 쏘아 올린 홈런 볼이다.

추신수는 3-3으로 맞선 연장 10회말, 투수 케빈 매카시를 상대로 좌중간을 넘기는 짜릿한 끝내기 솔로포를 날렸다.

추신수의 시즌 8호, 메이저리그 통산 176호 홈런이었다.

이 홈런으로 추신수는 마쓰이 히데키(일본)의 통산 175홈런을 넘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아시아 출신 타자가 됐다.

한편 추신수는 이날 짜릿한 동점 2점 홈런으로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추신수는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와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2-4로 뒤진 7회말 1사 1루에서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동점 2점 아치를 그렸다.

시즌 10번째 홈런으로 추신수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 그는 2005년 빅리거에 데뷔한 이래 9번째로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넘겼다.

또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통산 최다 홈런을 178개로 늘렸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홈런으로 4-4 동점을 이룬 뒤 8회말 아드리안 벨트레의 솔로 홈런, 조이 겔로의 투런포로 전세를 뒤집어 7-4로 이겼다. /연합뉴스

오승환 만루포 허용... 시즌 2패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만루 홈런을 허용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승환은 6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1이닝 동안 그랜드 슬램을 얻어맞고 4실점(3자책점) 했다. 평균자책점은 3.12에서 4.00으로 올랐다.

1-0으로 앞선 7회초 무사 1루에서 구원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디디 그레호리우스를 몸 맞는 공으로 내보내 위기를 불렀다.

에런 히크마저 풀 카운트에서 볼넷으

로 내보낸 오승환은 미겔 안두하르에게 초구 컷 패스트볼을 던졌다가 좌측 스탠드에 떨어지는 만루 홈런을 맞았다.

시즌 4번째 피홈런이다.

오승환은 3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에서도 0.2이닝 동안 안타 4개를 맞고 3실점한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3실점 이상 내주며 임무 완수에 실패했다.

오승환은 후속 세 타자를 삼진과 뜬공으로 각각 요리하고 힘겹게 이닝을 마쳤다. 팀이 2-7로 지면서 오승환은 시즌 2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메이웨더 '수입 1위' 탈환... 1년 3052억원

미국의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1·사진)가 전 세계 운동선수 수입 1위 타이틀을 되찾았다.

메이웨더 주니어는 지난 1년간 총 2억 8500만 달러(약 3052억원)를 벌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6일 공개한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수입 톱 100 중 1위에 올랐다.

복싱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평가받는 메이웨더는 지난해 8월 UFC 스타 코너 맥그리거(30·아일랜드)와 이색 복싱 대결 한편으로만 2억 7500만 달러(약 2945억원)를 주머니에 켜졌다. /연합뉴스

맥그리거도 돈방석에 앉았다.

맥그리거는 8500만 달러(약 910억원)를 자신의 몫으로 떼어가면서, 부대수입을 포함해 총 9900만 달러로 4위에 자리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각각 1억 1100만 달러, 1억 800만 달러로 2, 3위를 차지했다.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호날두는 메시가 FC바르셀로나와 천문학적인 액수에 재계약한 여파로 3위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박태환 20대 마지막 실전

오늘 TYR 프로 수영 시리즈 대회 출전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9·인천시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전 마지막 실전을 치른다.

박태환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조지 F. 헤인즈 국제수영센터에서 개막하는 2018 TYR 프로 수영 시리즈 대회에 출전한다.

나흘 동안 열린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4개 종목에 참가신청을 했다. 대회 이틀째인 8일 자유형 200m를 시작으로 9일 100m와 800m, 10일 400m 경기에 차례로 나설 예정이다.

박태환은 4월 말 광주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유형 100m·200m·400m·1,500m 네 종목에 뛰며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자카르타행을 예약했

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훈련 성과 점검 차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1,500m 대신 800m 경기를 뛴다.

박태환은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을 앞두고도 샌타클래라 대회에 참가했었다.

2011년에는 자유형 100m와 200m, 400m에서 3관왕에 올랐고 2012년에는 자유형 800m를 더해 4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한 박태환은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위해 4월 말 일시 귀국한 뒤 지난달 13일 다시 시드니로 건너갔다. 이후 시드니에서 담금질하다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려고 지난 2일 미국으로 넘어갔다.

샌타클래라 대회는 박태환이 올해 아시안게임 이전 치르는 마지막 실전 무대가 될 전망이다.

8월 9~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팬퍼시픽선수권대회 참가도 고려했으나, 아시안게임 직전이라 출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시안게임 경영 종목은 8월 19~24일 치러진다. /연합뉴스